

D` Revolution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다-레볼루션:디자인 혁명’
9월1일~10월31일
비엔날레전시관



D뮤지엄과 와ندا 바르셀로나가 협업하는 작품 'From color to eternity'



'겨울산'

생명순환의 아름다움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자인 미래 탐구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유를 전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나다.’

올해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변화의 물결 속에 치유와 발견 등 미래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내용으로 꾸려진다. 또 디자인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변화와 다름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시대 정신도 담는다.

행사를 주관하는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은 24일 김현선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총감독이 참여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전시구상 등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했다.

주최측은 지난 10월 올해 행사 주제를 ‘다-레볼루션:디자인 혁명(D-Revolution)’으로 정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전시 주제 ‘다-레볼루션’은 ‘Design(디자인)’과 ‘Revolution(혁명)’의 합성어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디자인의 미래를 탐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마스터플랜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참여 디자이너 및 작품을 확정하고 7-8월 전시 준비에 이어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에서 관람객들을 만난다.

올해 행사는 5개의 본 전시(주제관)와 1개의 특별전, 2개의 기념전, 국제디자인컨퍼런스, 온-

광주디자인진흥원 온라인 간담회, 마스터플랜 확정·발표

본전시·특별전·마켓 등...VR 언택트 전시·디지털플랫폼 활용

오프라인 마켓 등으로 구성됐다.

주제관의 컨셉은 ‘d-Revolution, 하나의 주제, 두 개의 관점’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공공성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 전시를 꾸민다. 7개의 존으로 구성된 전시공간은 광주의 역사성을 아우르며 대표 이미지인 ‘빛’을 적극 활용했다. 광주의 이팝나무에서 채취한 향기를 빛과 결합시킨 ‘5월 향기로 피어난 혁명의 빛’이 대표적이다.

국제관의 컨셉은 ‘덜 레볼루션’이다. 독창성의 새로운 개념인 ‘덜(DUB)’은 외국의 것을 현재의 것과 재조합해 창조하는 예술적 행위로 외국에서 가져온 주제를 각색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아트 트렌드다. 국제관에서는 밀라 니스카코스키 등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3개국 작가들이 참여하는 ‘노르딕 코너’, 이탈리아 디자인의 ‘현재’를 보여줄 줄리오 이아케티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인간과 기술의 콜라보레이션을 추구하는 AI관의 컨셉은 ‘DNA’로 디지털 혁명 속 AI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람과 기술간의 무한 확장성을 보여주는 기획이다. 마스크로 인한 얼굴의 부재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을 상기시키며 언택트 시대 소통의 의미를 묻는 ‘마스크 미착용시()’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진화가 된 혁명들’을 컨셉으로 하는 체험관은 인간이 변화하는 일상의 문제를 마주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모습을 그려 나가는지 보여준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글과 컴퓨터, 예술의 전당 등이 참여하며 12만개의 아로마 허브 테라피를 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향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x자연향기 체험전’도 꾸려진다.

지역산업관을 광주 뷰티 업체 공동 브랜드 개발 화장품을 선보이는 뷰티&패션 비즈니스 존, 중소기업 창업지원 우수상품을 홍보하는 대표 비즈니스 존, 관람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으로 구성된다.

전 세계인에게 디자인적 화두를 던지는 명강연을 들려줄 국제컨퍼런스에는 페터 제호 레드닷 회장, 카림 하비브 기아글로벌디자인 담당 전무,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참여한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열리는 올해 행사에서는 아트 마스크 챌린지, 카카오 챗봇을 활용한 전시관 이용, 광주 멋과 맛·디자인을 키워드로한 ‘브이로그’ 제작, VR 제작을 통한 언택트 전시, 맞춤형 오디오 가이드 제작 등을 통해 관람객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또 전시 기간 중에는 광주 지역 갤러리, 미술관 등과 연계한 특별 전시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제전 큐레이터로 위촉돼 화제가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올해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김현선 총감독은 “디자인비엔날레는 공개채용된 총감독이 함께 전시를 꾸릴 큐레이터를 선정한다”며 “당초 선정됐던 노 관장이 개인사정으로 미참여 의사를 밝혀 지난 1월 15일 해촉됐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어 “노 감독이 전시 기획 초기단계에서 빠져 전시준비에는 차질이 없었고, 바로 홍익대 시모네 카레나 교수가 큐레이터로 참여해 전시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양화가 서미라 개인전, 27일~6월20일 광주문예회관

화폭을 가득 채운 푸른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새벽 하늘, 그 속에 점점이 박힌 별들은 편안한 휴식과 함께 위로로 전해준다.

자연은 소재로 꾸준히 작업해온 서양화가 서미라 작가 개인전이 오는 27일부터 6월20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예회관이 진행한 공모전에 선정돼 마련됐다.

‘별, 바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서작가는 하늘과 땅, 강가 등 자연과 우주의 생명 순환에 대한 아름다움을 담은 이야기를 담은 회화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서작가의 작업은 자연으로부터 출발한다. 동트는 새벽녘, 어스름한 초저녁, 깜깜한 한밤중 등 다양한 시간대를 포착한 하늘의 풍광을 보고 있으면

화폭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 공간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해온 인간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또 눈으로 뒤덮인 하얀 산과 어우러진 푸른 하늘은 색의 대비를 이루며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밖에 ‘별 이야기’ 시리즈는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별들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듯한 다채로운 색감이 눈에 띈다.

전남대 미술학과 동대학원 석사과정졸업을 졸업한 서작가는 지금까지 개인전 14회, 단체전 50여 회에 참여했으며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오지호미술상 청년특별상 등을 수상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보면 볼수록 매력 넘치는 ‘광주’

광주관광재단, 영상콘텐츠 제작...28일 유튜브 공개

광주관광재단(대표이사 남성숙)은 광주를 주제로 한 관광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관광도시 광주 매력 알리기에 나섰다.

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광주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으며, 유

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 간접적으로 광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영상은 28일부터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영상은 유명 유튜브 소피아의 광주 예술자원 소개 브이로그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활동중인 MC와 개그맨이 함께 광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광주를 소개하는 웹 예능, 광주가 생소한 외국인이 직접 광주를 체험하는 ‘YOU랑 GO’, 방송인들이 광주의 유명캠핑장에서 힐링타임을 갖는 힐링 캠핑 토크쇼 등으로 구성됐다.

또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하고 유튜브 구독자 7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스페인 출신 유튜버 라라베니모와 외국인 크리에이터가 출연해 광주의 5·18 역사를 배우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영상도 공개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풍화, 아세안의 빛’

ACC 서울서 특별전, 26~30일 코엑스 전시관



2019년 개최된 ‘아세안의 빛 하나의 공동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아시아문화원(ACI, 원장 이기표)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관 D홀에서 ‘풍화, 아세안의 빛’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9년 ACC 창작작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2019년 10월 한-아세안 30주년을 기념해 ACC에서 첫선을 보여 큰 인기를 모았다. 쌍방향으로 움직이는 조형 작품(키네틱 라이팅)을 통해 빛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하늘에 울리는 제의적 의미의 풍화와 백열전구를 모티브로 한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을 전달하는 묘화(妙火)가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아시아를 표현한다.

이번 전시는 ㈜디자인하우스가 주최하는 제26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초청 받아 특별전 형태로 열린다.

/박성현 기자 skypark@

‘이건희 미술관’ 서울에 세워질 듯

문광부 의견 수렴 다음달 발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기증으로 추진되는 미술관 신설 계획이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과 관련한 미술관 신설 방침을 결정해 내달 황희 문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문화재와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기증받은 뒤 미술관 신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술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술관 신설 지역은 많은 국민이 감상하기를 바라는 기증 정신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황희 문체부 장관도 기증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미술관 신설 방침을

발표하며 “고인의 훌륭한 뜻이 한국을 찾는 관광객과 많은 사람에게 공감되고 향유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자체들이 ‘이건희 미술관’ 유지를 놓고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신설 방향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술관 신설 방식은 미술계에서 요구하는 ‘국립근대미술관’ 신설이 될 것인지, 이건희 컬렉션만 별도로 전시하는 미술관이 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술계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지만, 국립근대미술관이 없는 기형적 구조를 타개하자며 지난달 29일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준비위를 결성하고 서울 송년동 부지와 정부서울청사 등에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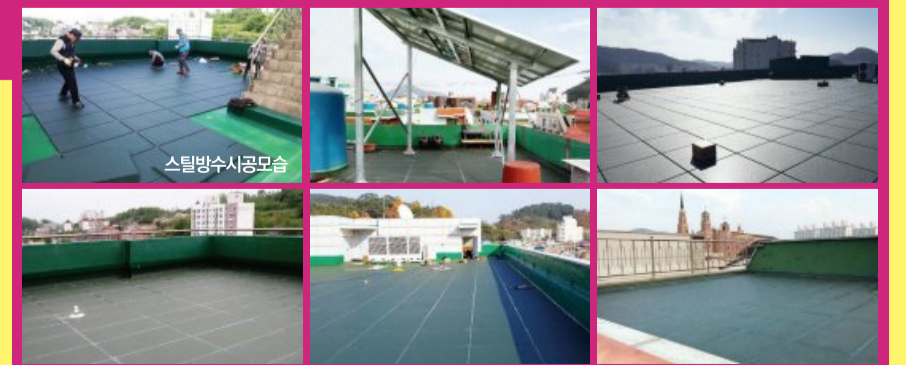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